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55 호 현대불교
2021년 9월 8일(음 8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그저 이론으로만 끌내지 말고 실천궁행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아까 끄트머리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질문자2(남) 산소를 잘못 건드렸을 때 자손에게 화가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큰스님 응, 그거는요, 여기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교리를 다 놓고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무슨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가 있습니까? 일체 만법에, 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靈), 의식은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고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고, 또 내가 가다가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그냥 묻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지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또는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 봐서 알겠지마는 아, 그런 데서 부적을 붙이고 온통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걸리다가는 못 하나 박아도 탈이 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고 뭐고 다 버리니까 탈도 안 나고 외려 더 잘되더라는 얘깁니다. 지금 사람이 먹고살고 이렇게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세월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놓으세요. 아무 걱정, 걸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질문자3(남) 지금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례해서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 몸 받기는 어려운 것과 인간이 늘어 가는 것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뭐, 보통 제가 책자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것이 전개되었는가?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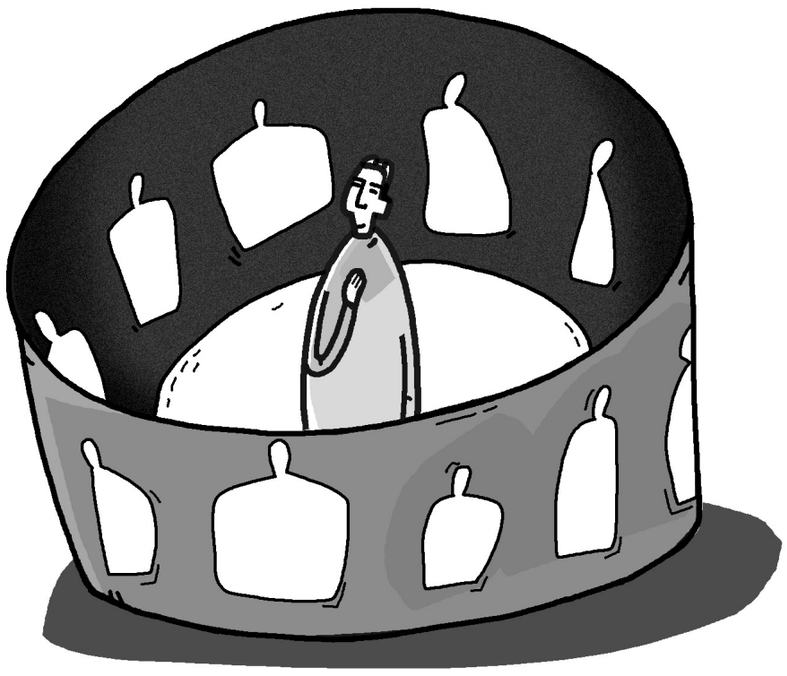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에서는 일체 중생에 다 불성이 있고, 인간의 본성은 다 청정무구하다고 합니다. 그런 청정무구한 마음에 처음에 어떻게 이것이 움직여서 이 삼라만상이 전개되었는지 우선 요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댁의 몸뚱이도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또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외부에 있는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 고향은 어딘가? 자기 몸뚱이가 그냥 고향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수화풍 속에서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물컵을 가리키시며) 지수화풍이 계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아닌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화풍끼리 전부 헤어져서 살다가 야, 이렇게 따로따로 이러다 보니깐, 우리가 우리를 탄생시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한 물건을 내놨을 때 그때에,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존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이 된 거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도 하고 어리석지 않은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생각의 진화력을 갖게 됐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간까지 이끌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쌓은 우리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생각으로서, 내가 그전에 그랬죠? 토끼가 다리가 다 똑같았는데 내리막을 뛰다 보니깐 앞다리가 똑같으니깐 뛰어지질 않아. 잡아먹히기 똑 참하거든. 그래서 고 다음서부터 '나는 앞다리가 조금 짧게 나와야겠다. 짧게 했음 좋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나올 때 짧게 돼 가지고 나왔더래요.

고개를 깨우뚱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하나, 태교를 예로 듭니다. 어느 부부가 쌍꺼풀도 하고 얼굴도 아주 미인으로 만들고, 미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낳아 놨는데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자기 본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 남들이 볼 때에 저 부부는 저렇게 잘생기고 미인인데 어째서 애는 이렇게 메줏덩이같이 낳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들은 있죠. 그랬는데 그 후에 두 번째 애를 가졌을 때 누가 이렇게 일러 줬습니다. 당신은 당신 얼굴 그림 그려 가지고 나온 것을 생각지 말고 당신 할아버지가 참 잘생겼으니 할아버지 그 얼굴대로 그대로, 몸집 그대로 모든 것을 태교하면서 생각해라. 그렇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딴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깐 아주 잘생긴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나왔더랍니다.

이것은 즉 마음입니다. 마음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 몸뚱이도 없건만 그렇게 잘 그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교입니다. 그래서 태 안에 있는 어린애, 그 자라는 어린애의 마음, 그것은 바로 그 어린애의 마음이나 우리 산 사람들 마음이나 모든 게 같이 늙어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젊은 분들도 노인네들도 우리가 지금만 살고 요다음에 그냥 잎이 떨어졌다고 그 이듬해 봄에 잎이 안 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그려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것들도 이 마음에 달려 있죠. 그런데 투표를 해도 많은 쪽으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악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그 악의 무리들로 인해서 천지가 산란해지고 지금 세상이 모두 산란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달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쓰고 돌아간다면 무(無)의 세계의 내 마음이 바로 잘 알 거고, 무의 세계의 내 마음이 유(有)의 행으로 나오니 그것이 잘 될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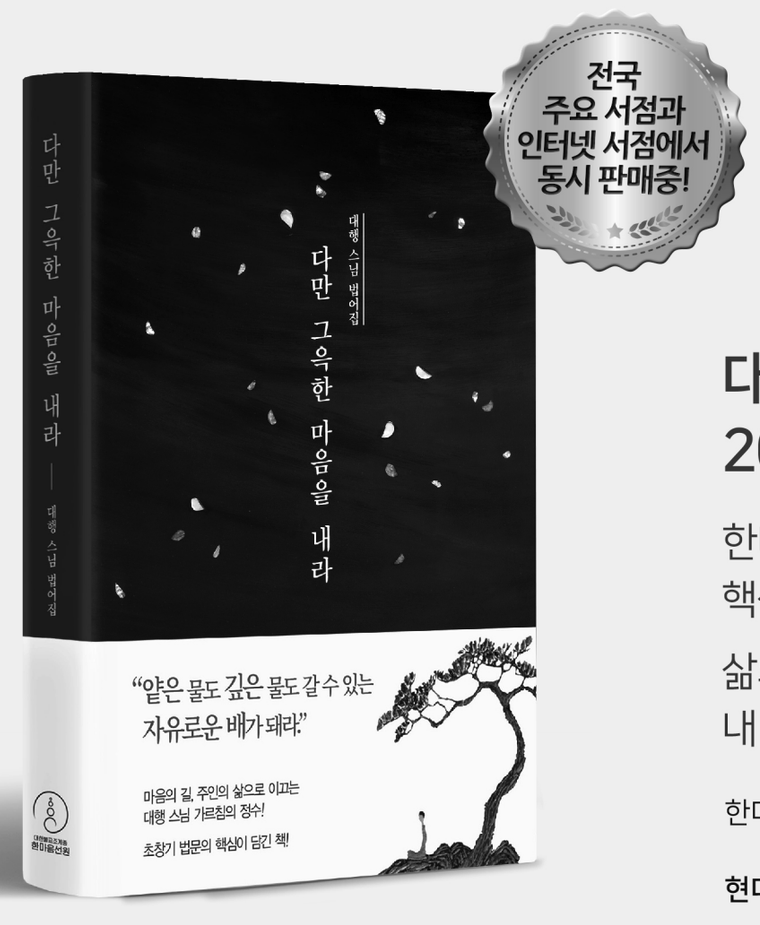
때마다, 천 년만큼씩도 되고 오백 년만큼씩도 되고 십만 년만큼씩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채 못 되기 때문에, 넘쳐흐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발전은 성급하게 되면서 그릇은 작으니 그게 넘쳐흐르게끔 돼 있는 것에서 이러한 발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부터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릇이 요만하다면 요만한 거밖에 담기지 못하는데, 요만한 그릇에다가 그냥 빨리 성장하라고 막 그 에너지를 들이부으니까 이게 넘쳐흐르는 거죠.

요다음에 또 질문하시도록 하고 무조건, 질문하시되 그것도 함이 없이 하시고, 그저 거름이 되시게끔 하십시오. 여기에 책도 있고 카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승이다 소승이다, 잘된다 못된다, 아주 내가 최고지 이런 것도 다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질문자4(남) 제가 지난 5월 14일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 애가 굉장히 놀라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 봤습니다. 병명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제 인(因)으로 인해서 자식이 받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금은 금대로 놓고, 또 쇠는 쇠대로 놓고, 은은 은대로 놓는다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두 모아 놓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엮어진 겁니다. 보는 사람도 그런 죄, 또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하고 그 당하는 사람하고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딪치는 거는 깡통이기 때문에 부딪칩니다, 둘이 아니게.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

☞ 22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